



국제보훈, 적극적 평화외교를 위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갖는 소중한 통로이자 자원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 ④ 국제보훈, 보훈의 새 지평

대륙과 해양, 문명과 문명, 제국과 제국, 이념과 이념 사이에 놓인 경계국가·교량국가의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한국문제는 언제나 국제문제요 세계문제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로 연결되었고, 한반도의 전쟁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대충돌과 희생으로 연결되었다.

그만큼 한반도에서의 충돌은 규모와 희생과 성격에서 세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의 전쟁 중의 하나인 6·25 한국전쟁 역시 당대 세계의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한반도에서 대결한 전형적인 세계시민전쟁이었다. 이 대참사는 한국인들이 겪은 미증유의 세계전쟁이었던 것이다. 6·25 한국전쟁의 비극을 딛고 미래 번영의 토대를 놓은 국가수호, 안전 보장, 전후 복구는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은 물론이려나와, 생명과 인권, 자유와 박애,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당대 세계인들의 참전과 연대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유엔으로서도 창립 이후 최초의 집단안보행위일 만큼 결정적 의미를 지니는 세계사건이었다.

국력과 국가이미지 높이는 중요한 소프트파워의 하나

현대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 세계적 대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섰다는 점은 더욱 자랑스럽고 가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 속의 당당한 나라가 되었다. 첨단기술, 경제와 무역, 인권과 민주주의, 의료와 방역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선진국 수준에 다다랐다. 우리 시대 한국의 성취는 세계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눈부신 것이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한국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만하지 않되, 가슴 벅찬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발전시킨 선조들의 고결한 희생에 가장 깊고 뜨거운 경의와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글 쓰는 순서〉

1. 평화를 향하는 보훈
2. 독립·호국·민주의 이해와 가치
3. 국가유공자, 정체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4. 국제보훈, 보훈의 새 지평
5. 보훈과 복지
6. 보훈과 여성
7. 보훈과 공공의료
8. 보훈과 문화
9. 통일시대를 향한 보훈
10. 보훈의 미래가치

이제 우리의 경의와 감사, 협력과 연대는 국가와 국경, 인종과 민족을 넘어야 한다. 한국의 국가수호와 번영을 위해 희생한 나라와 국민들에게까지 보훈의 범위를 넓히는, 보훈의 새 지평, 새 자원을 말한다. 즉 국제보훈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원조의 수혜국(受惠國)에서 지원국(支援國)으로 바뀐 지 오래다.

무엇보다 국제보훈은 과거의 도움과 지원에 대한 보답과 감사의 표현이 된다. 한국인들은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진 국민이라는 인식을 세계에 심어줌으로써 국제보훈은 국력과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파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국제보훈은 놀라게 발전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력의 반영이라는 점이다. 비약적인 국가발전이 없었다면 국제보훈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국가종합역량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국민 심성과 마음의 측면에서 볼 때 국제보훈은 높은 세계 도덕과 윤리의 표출을 말한다. 국력이 허약할 때 침략전쟁을 당하여 세계인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키고 일어서고 도약한 국민으로서, 세계와 세계인을 향한 보편적인 세계 시민도덕과 세계시민윤리의 실천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은 세계사랑과 인도주의의 실현이 된다.

넷째로 국제보훈은 가치보훈을 뜻한다. 인류 공통의 가치, 즉 자유와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와 국민들을 연결하는 가치연대의 의미를 담는다. 한국이 그러한 가치연대의 선두에 설 수 있는 핵심통로가 바로 국제보훈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제보훈은 장차 한국외교의 중심축의 하나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섯째로 국제보훈은 미래보훈을 뜻한다. 국제보훈은, 혹은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국난을 대비하여 오늘의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미리 놓는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우리 세대의 번영이 앞 세대의 희생의 산물이듯 우리 세대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헌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여섯째로 국제보훈은 적극적인 평화보훈을 의미한다. 즉, 과거의 지원에 대한 현재의 국제보훈은 소극적 과거 기억과 감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적극적인 전쟁방지와 평화수호의 의미를 담는다. ‘오늘의 보훈’은 ‘전쟁의 과거’와 ‘평화의 미래’를 연결하는 최고·최선의 연결고리인 것이다. 인류애를 통한 국제 평화창조 행동인 것이다.

국제보훈 대상 범위 넓히고 공동추모행사 등 적극 활용해야

이러한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인 의미를 갖는 국제보훈의 구체적인 영역으로는 참전국들의 파견과 지원 규모의 정확한 파악, 생존자 국내 초청, 전투 업적 정리와 홍보, 명예 선양, 참전단체 지원 및 후손 발굴과 연대, 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및 한국전 관련 기록과 책자 제작 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장학 지원, 정기 청년 교류와 상호방문 등 매우 많은 분야가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광복, 건국,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의 한국에 대한 국제 헌신과 기여에 대해서도 발굴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다.

국제보훈의 방식은 양자, 다자, 국제공동의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 가장 많은 협력과 연대가 가능할 양자 방식은 사업추진에 앞서, 우선 기존의 유엔 참전 16국에 더해, 의료지원국 및 그동안 개별 참전국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던 나라들 - 이를테면 멕시코, 아일랜드, 수리남 - 에 대한 참전 사실 확정을 통해 국제보훈과 연대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국제보훈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과학과 기술, 경제와 무역,
첨단제품과 상품수출을 넘어
감사 표시, 인류사랑,
세계윤리, 미래 평화건설에서도
우뚝 선 선도국가가 되길 소망”

한국전 참전 국가들은 6대륙 25개국에 달한다. 한국전쟁은 단 한 대륙도 빠지지 않고 참전한 유일한 개별국가 전쟁이었던 것이다.

다자 및 국제공동 방식으로는 참전국들 전체가 하나의 공동 추모일 - 예컨대 매년 11월 11일 한국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 을 택하여 공통의 추모행사나 묵념의 기회를 갖는 것도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전체 참전국들을 포괄하는 ‘한국전 참전국 정상회의’, 또는 ‘한반도 평화 정상회의’를 유엔 국제평화기구로 설치·등록하여 연례 정상회담을 갖는 것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국 주도로 참전국 사이에 정례 보훈장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국제보훈이야말로 적극적 평화외교를 위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갖는 소중한 통로요 자원인 것이다.

선조들이 가꾸고 발양해 온 ‘세계로의 지혜’ 계승할 때

21세기 한국보훈의 핵심 기조와 방향은 네 가지라고 할 수 있다. 보편보훈, 통

합보훈, 미래보훈, 국제보훈이 그것들이다. 우리는 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2020년 6·25 한국전쟁 70주년의 해를 맞아 국제보훈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매우 의미 있는 계기를 맞은 바 있다.

먼저 세계가 대감염병의 고통과 공포로 신음할 때 유엔참전국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함으로써 생명위기에 처한 참전국가와 용사들에게 상당한 반향과 감동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둘째 2020년 3월에 제정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로서 이서 획기적인 계기였다. 이에 앞서 한국은 이미 6·25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인 2013년 7월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함으로써 유엔참전국들의 국제지원을 제대로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국제보훈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과학과 기술, 경제와 무역, 첨단제품과 상품수출을 넘어 감사 표시, 인류사랑, 세

계윤리, 미래 평화건설에서도 우뚝 선 선도국가가 되길 소망해본다. 경계국가 시민으로서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세계를 향해 열려있었고, 또 세계를 품어온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인으로서의 품새와 시야가 한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근본 토대의 하나였다.

국제보훈을 통해 이제 우리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선조들이 가꾸고 발양해온 그 아름다운 ‘세계로의 지혜’를 다시 계승할 때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때다.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의 절대 희생 위에 오늘날의 우리가 존재한다. 그 희생을 통해 발전한 우리는 마땅히 세계시민적인 동시에 선도국가적인 책임윤리와 소명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땅과 온 누리가 평화로워질 때까지. 오늘날의 우리와 한국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의 선조들과 세계의 영령들에게 삼가 하늘의 평안을 기원 드린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소장

공동기획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 보훈교육연구원

참전국 대사와의 교류, 마스크 보훈으로 보폭 확장

국제보훈 - 현장과 사례

6·25전쟁 70주년 등을 지나며 국가보훈처가 주도하는 국제보훈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열렸던 각종 참전 행사 등을 거치며 참전국들과 만들어진 연대가 점차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들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잇달아 참전국 대사들을 만나는 ‘참전국 은혜에 대한 보답 행보’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온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의 마스크 외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지난달 3일 후안 카를로스 카이자 로즈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 5일에는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를 각각 만나 양국 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황 처장은 4월 중에도 전투참전국 대사들을 중심으로 접견을 계속 이어가면서 국제보훈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황 처장의 이 같은 국제보훈 행보는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참전국은 해에 대한 보답의 뜻을 갖는 한편, 각 참전국과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보훈정책을 공유하고 참전국과의 다양한 협력 체

널을 확보한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마스크 외교의 경우 코로나19 극복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참전용사들에게 K방역의 주역 중 하나인 방역마스크를 전달해 세계의 칭송을 받은 것을 지칭한다.

지난해 5월 세계가 마스크 물량부족으로 크게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와 6·25전쟁70주년사업추진위원회가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유엔 참전용사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참전국 미국에 마스크 50만 장, 그 외 참전국 21개국에 50만 장 등 해외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총 100만 장을 지원했다.

당시 로버트 월키 미 보훈장관은 성명



지난해 5월 유엔참전국에 보낼 마스크를 수송기에 싣고 있는 모습(왼쪽). 지난해 11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양국 협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오른쪽).

을 통해 “마스크 선물은 70년 전 전쟁에서 다져진 서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깊고 지속적인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한미 양국이 우리 시민들의 삶과 생계를 위협하는 팬데믹 통제를 위한 또 다른 고귀한 대의명분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며 고마워



했다. 이어 보훈처는 올해 1월에도 200만 장의 방역마스크를 추가 확보해 미국에 100만 장, 다른 참전국에 100만 장을 각각 지원했다. 해외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마스크외교는 지난해 외교부 공공외교위원회가 선정한 2020년도 공공

외교 우수사례 베스트협업상을 받아 ‘외교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제보훈은 이제 ‘과거’ 참전을 통해 맺었던 우정을 ‘미래’를 더 깊고 넓은 협력을 위한 소중한 외교의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